

大韓醫療氣功學會

대한의료기공학회지
J. OF MEDICAL GI-GONG
Vol.11. No.1. 2009.

전통적 출산법에 대한 문헌적 고찰

윤성민* · 강한주* · 정우석* · 장명준*

* : 대한의료기공학회

ABSTRACT

Study of the oriental medical literature for traditional childbirth

Seong-min Youn* · Han-ju Kang* · Woo-seok Jeong* · Myeong-jun Jang

*Dept. of The Korean Academy of Medical Gi-Gong

The community of women into society in various fields is expanding, and married late, and accordingly, the first child birth is increasing age. Accordingly, dystocia has also increased. Listed in the literature that the traditional method of birth seemed to oriental medical interpretation of one of the ancient wisdom of the predecessors to explore.

· Received : 27 November 2009 · Revised : 10 Desember 2009 · Accepted : 24 Desember 2009
correspondence to : 윤성민(Seong-min Youn)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27-21

Tel : 031-983-8090

Fax : 031-983-8091

E-mail : simcity200@nate.com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Child birth custom divide into childbirth preparation, childbirth and postpartum care. Postpartum care divide into preparation of the birthplace, food for pregnant woman and birth preparation of the necessary things.

2. Preparation of the birthplace of the court case and that queen is three months, one month before that in the case of concubines were installed. The difference in manners, and actual number but the configuration of the same item was prepared. In the private, birthplace is installed husband's home or parent's home.

3. Rice and seaweed is food for pregnant woman. San Miguel (产米), sangwak (山藿) specifically called was selected by Keep elaborate.

4. 1 month before birth to baby clothing is usually prepared. For the safe of a parturient woman and a baby, magical prescription was practiced in so-guk-so(昭格署) in early chosun dynasty. After so-guk-so(昭格署) abolished magical practice was stopped. Then Wore old clothes based on dong-ui-bo-gam(東醫寶鑑)

5. Im-san-ye-zi-bub(臨产豫智法) specifically to instruct the royal birth is the birth of guidelines. Im-san-ye-zi-bub(臨产豫智法) consist of birth place, abdominal pain Precautions, food, care after childbirth, remove the placenta position, method of cut navel, bath, protection. Through various court records of the situation, according to the guidelines are properly applied based on dong-ui-bo-gam(東醫寶鑑).

Keyword : Traditional childbirth, Im-san-ye-zi-bub(臨产豫智法), dong-ui-bo-gam(東醫寶鑑), Oriental medicine.

I. 서론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다방면에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만혼과, 첫 자녀 출산연령이 증가하고 있다. 초산연령의 증가는 난산을 야기하기 쉽기에 산모와 태

아의 건강을 생각하는 출산법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문헌에 나와 있는 전통적 출산법을 들여다 보고 한의학적 해석을 통해 옛 선인들의 지혜를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의례란 祈子, 妊娠, 解産, 産後, 育兒와 관련한 일련의 의례를 일컫는다. 이를 祈子俗, 妊娠俗, 解産俗, 産後俗, 育兒俗으로 구분하여 그 의례구조와 성격을 이해한다¹⁾.

본고에서는 出産俗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속(出産俗)은 해산속(解産俗) 또는 산욕속(産褥俗)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주로 출산의 준비, 출산, 산아의 생년월일시점 등의 습속을 말한다²⁾. 이에 본고에서는 궁중과 민간으로 나누어 출산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궁중과 민간에서의 출산속이 신분과 격식에 따른 예의 차이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궁중 안에서 후궁과 왕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차이점 외에도 행위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 일들

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비교분석하여 출산풍속에 담긴 철학과 한의학적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출산법에 있어서는 임신예지법이라는 왕실의 출산지침서가 있다. 그 목차와 편제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이 책을 기준으로 東醫寶鑑과 각종문헌을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출산법 안에 숨겨진 한의학적 원리를 찾고, 실제 출산행위에서 지침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출산의 준비에 관계된 습속은 산실(産室)의 준비, 산부(産婦) 음식, 산아(産兒)에게 필요한 물건의 준비가 주된 내용이 되며 출산에 관계된 습속은 순산(順産), 안산(安産), 삼신(三神) 모시기 등이다³⁾.

1. 출산준비

1) 산실의 준비

1) 呂重哲 : 祈子俗에 대한 人類學的 考察,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여성문제연구 8권, 1979, p.207.

2) 서울 六百年史 - 출산속(出産俗) 개관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0.html>

3) 서울 六百年史 - 출산속(出産俗) 개관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0.html>

(1) 궁중

궁중에서는 출산에 있어서 왕비와 후궁의 차이가 있었다. 왕비는 원칙적으로 궁중의 時御所에서 解産하였으며⁴⁾ 출산을 위하여 궐 안에 産室廳을 설치하였다. 이에 비해 후궁의 경우 선조 이전까지는 궐 밖의 친정에서 해산하였으므로 특별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왕비의 출산을 위한 준비는 궁중의학을 담당했던 내의원에서 주관하였다. 왕비의 임신이 확인된 이후 출산예정보다 보통 3개월전에 내의원에서는 産室廳의 설치를 요청하였다. 産室廳을 설치하는 당일에는 의례 産室廳의 시령의관이 왕비를 진맥하였다⁵⁾.

産室廳은 책임자인 3제조와 그 아래의 실무담당자 그리고 잡역을 담당하는 員役들로 구성되었다. 産室廳의 책임자인 3제조는 내의원의 최고책임자인 3제조가 그대로 담당하였다. 産室廳의 실무담당자에는 의술을 담당하는 의관,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관, 시간을 알리는 奏시관, 출산 후의 권초를 담당할 권초관 등이 있었다. 의관을 어의, 내의, 침의, 諸藥同參 등 내의원의 전문가였으며 여의사인 의녀도 참여하였다. 어의와 내의는 長望으로 차출되었는데, 御醫는 2-3명, 내의는 1명이었다. 이에 비해 침의 및 諸藥同參은 왕의 특교로 특정인이 차출되거나 아니면 어의, 내의와 함께 차출되기도 하였다. 행정실무를 위한 別掌務官과 서원은 초기로 왕에게 보고하여 차출하였으며 시간을 담당하는 주시관은 관상감에서 차출되었다. 권초관은 정2품 이상의 관원 중에서 차출되었는데 이조에서 개정하여 차출하였다. 産室廳의 잡역을 담당할 원역은 司僕寺 등에서 충원하였다⁶⁾.

産室廳을 설치하기 이전에 3제조는 왕에게 4일마다 문안을 드리고 의관과 의녀는 3일마다 문안을 드리다가 産室廳이 설치되면서는 3제조와 의관, 의녀가 매일 문안을 드렸다. 아울러 3제조는 왕의 하교에 따라 産室廳에서 직숙 또는 윤직을 하였다⁷⁾.

4) “産室은 必히 中宮殿下의 時御所로 肅” (《大君公主御誕生의 制》, 장서각 도서분류 2-2625).

5) 신명호 :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Vol.21, p.19.

6) 上揭書, p.19.

産室廳을 설치한 후에는 왕비의 순산을 위하여 궁궐 안에서笞刑과杖刑등의 형벌 및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일체 엄금하였다⁸⁾. 아울러 짐승을 도살하는 것도 금지하였다⁹⁾.

임란이전에는 임신한 후궁은 대궐을 나가 친정에서 해산하였다고 한다¹⁰⁾. 그렇지만 내의원의 의관과 여의, 시녀 등이 호산을 위하여 궐 밖에 파견되어 후궁의 출산을 도왔다¹¹⁾. 그러다가 선조13년(1580) 숙의 정씨가 난산으로 죽자 이후부터는 후궁의 출산도 궐내에서 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한다¹²⁾. 선조 이후 후궁들도 대궐 안에서 출산을 하게 됨에 따라 후궁의 출산을 위한 護産廳¹³⁾과 관련된 기록이 상세하게 남게 되었다.

産室廳은 보통 출산 3개월 전에 설치되는 것이 상례였지만 護産廳

은 출산 1개월 전쯤에 설치되었다. 아울러 護産廳에는 내의원의 3제조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의관도 1-2명만 차출되었고, 침의나 議藥同參은 없었다. 捲草官은 따로 차출하지 않고 護産廳의 의관이 겸임하도록 하였다. 다만 書員, 奏時官, 司僕寺員役, 醫女 등 護産廳의 운영을 보좌할 인원들은 産室廳과 마찬가지로 배속되었다¹⁴⁾.

후궁의 출산을 위한 護産廳이 설치되었더라도 의관은 直宿하지 않았으며¹⁵⁾ 내의원 3제조도 護産廳에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해산 전에는 의관의 문안만 있었다¹⁶⁾. 물론 형벌을 금지하거나 禁屠 등의 특별조치가 시행되는 것도 아니었다.

産室廳 또는 護産廳에 소용되는 출산준비물 및 産室設置는 비록 왕비와 후궁이라는 지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¹⁷⁾. 이는 신분에 따라 격의 차이는 두었

7) 上揭書, p.20

8) 《선조실록》 160, 36.3, 정축조.

9) 《선조실록》 12, 9.5, 무진조.

10) 《선조수정실록》 14, 13.11, 정묘조.

11) 《중종실록》 21, 9.10, 병오조 및 《중종실록》 21, 10.3, 을축조 참조.

12) 정승혜 :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 : 장서각 소장 《림산예지법》을 중심으로, 문헌과 해석 통권37호 (2006년 겨울), p.72

13) “護産廳<嬪宮及宮人有娠 則設>”(《六典條例》 권6, 禮典 內醫院條).

14) 조선왕실의 의례와생활 궁중문화 고문서연구, Vol.21, No.0, p.20

15) “護産廳(중략) 《惟無直宿>”(《六典條例》 권6, 禮典 産室廳條)

16) “解娩前 則醫官問安”(《內醫院式例》 設廳 産室廳條).

17) “護産廳(중략) 凡舉行 同産室廳”(《六典條例》 권6, 禮典 産室廳條)

으며 그 실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차이를 두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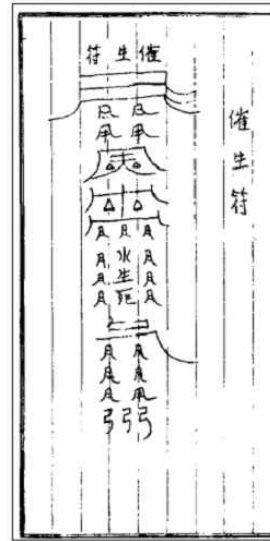
출산을 위한 산실의 설치는 기본적으로 《東醫寶鑑》으로 대표되는 궁중의학의 처방에 따라 이루어졌다. 《東醫寶鑑》에서 출산에 관련된 내용은 雜病篇의 <婦人> <小兒> 항목에 들어있다. 이에 의하면, 産室의 24방위에 각각 方位圖를 붙이고, 산모의 무사출산을 위한 催生符를 붙이며, 産室설치가 끝난 후에 산모의 안전을 도교의 신령들에게 요청하는 借地符를 세 차례 외우는 등의 절차가 있다¹⁸⁾. 産室에 설치된 催生符, 方位圖 등은 순산을 기원하는 부적들로서 《大君公主御誕生の 制》에 의하면 각각의 모양은 <그림1>과 <그림2>와 같다.

《東醫寶鑑》에 의하면 産圖·催生符·借地法은 모두 주문으로 썼다. 임신부가 있는 방의 북쪽 벽에 먼저 산도를 붙이고 최생부를 붙인 다음 차지법을 붙인 후, 차지법의 주문을 3번 외웠다고 한다¹⁹⁾.

18) 신동원·김남일·여인석 편역 :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1999, 중의 《雜病篇-婦人小兒門》 참조.

19) 허준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대한형상의학회·정행규·백근기 외 감수 :

다음은 借地法의 내용이다.



<그림1>



<그림2>

“주문을 외우기를 동쪽으로 열 보를 빌리고 서쪽으로 열 보를 빌린다. 남쪽으로 열 보를 빌리고 북쪽으로 열 보를 빌린다. 위로 열 보를 빌리고 아래로 열 보를 빌린다. 방의 가운데에서 사방 사십여

東醫寶鑑, 東醫寶鑑출판사, 2005, p.1819.

보를 안산을 위해 땅을 빌리니, 더러움이 있을세라, 동해신왕도 계시고 서해신왕도 계시며, 남해신왕도 계시고 일유장군도 계시다. 백호부인은 멀리로 열 길을 가고, 현원과 초요는 위로 열 길을 가며, 천부와 지축은 땅속으로 열 길을 가서 이 땅을 비워주소서. 산부 모씨가 편안히 거처하여 장애가 없게 하시고 기휘가 없게 하소서. 제신이 보호하사 온갖 악귀 물리침을 울렁같이 급히 여기소서.”라고 삼가 3번 읽는다²⁰⁾.

산실의 설치에 있어서 도교적인 색채가 많이 엿보임을 알 수 있다.

(2) 민간

시집 또는 친정집에서 산실을 준비하였다. 산실을 준비할 때에는 안방을 산실로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방은 시어머니가 거처하는 곳이지만 출산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으로 특권이 부여되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산(初産)인 경우에는 친정집에 산실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정집에서 출산하는 이유는 모녀간의 육친관계가 산

부(産婦)로 하여금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게 하고 산구안(産求安)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집에서 두 아이를 출산하면 해롭다는 속신이 있어서 한 집은 친정으로 해산하러 가는 경우도 있다.

산실을 준비함에는 실내외를 정결하게 하고 집 주변에는 산에서 황토를 파다가 뿌려놓기도 한다. 이리하면 잡귀의 근접을 막는다는 속신에 따른 것이다. 겨울에는 따뜻한 방으로 정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방으로 정한다.

산실 표시를 하여 부정(不淨)한 사람 · 죄인 · 상인(喪人) · 살생(殺生)을 한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이러한 금기(禁忌)를 범하면 산아의 질병, 불구, 사망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있다. 실내에 물건을 놓을 때에도 길방(吉方)의 손(損) 없는 방위로 가려 놓기도 한다.

해산에 임하게 되면 순산을 기원하는 뜻에서 빨래줄도 풀어 놓으며 굴뚝 등 막힌 곳을 열어 놓기도 하며 찢어진 문의 종이도 바르지 못하게 하는 습속이 있다. 이는 유사연상적(類似聯想的)인 주술형태(呪

20) 허준 지음 : 前揭書, p.1820.

術形態)의 속신에 따른 습속이다²¹⁾.

2) 산부 음식

출산 전에는 금기(禁忌) 음식을 제외하고는 평상시의 식사를 하지만 분만 후에는 음식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이러한 식사습관은 산모가 건강을 평상시와 같이 회복함에는 상당한 기일을 필요로 함으로 이 기간 중에 소용되는 식품을 산월(産月)이 오기 전에 준비하는 습속이다.

준비하는 식품은 쌀과 미역인데 이를 산미(産米), 산곽(山藿)이라 하여 특별히 엄선하여 정성들여 보관하였다.

산미는 돌이나 뉘가 섞이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조각 난 쌀(싸래기)도 골라낸다. 형체가 완전한 것을 골라 정결하게 하여 자루에 담아 미역과 함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산곽(미역)은 넓고 긴 것을 골라

21) 서울 六百年史 - 산실(産室).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1.html>

구입하여 미역오리가 꺾이지 않도록 잘 묶고 부서지지 않도록 창호지에 싸서 산미와 함께 보관하였다. 이러한 미역을 임부(妊婦)가 뜯어 먹으면 출산한 아기가 젖을 깨문다는 속신이 있으며 이러한 산미나 산곽을 구입할 때 그 값을 깎으면 아기의 복을 깎는다는 속신이 있다²²⁾.

3) 산아 의복의 준비

산아에 필요한 준비물은 포대기 · 기저귀 · 배내옷 · 베개 · 솜 등인데 주로 면직물로서 습기 흡수가 잘 되고 부드러운 천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명주를 사용하기도 한다.

첫아기의 포대기를 친정에서 해주면 아이에게 길하다는 속신(俗信)이 있으며 이러한 물건을 살 때도 값을 깎으면 아이의 복록(福祿)을 깎는다고 믿고 있다.

배내옷은 산아가 처음 입는 옷인데 산후 아기를 씻어 준 다음에 바로 입히거나 3일이 지나서 입혀 주기도 한다. 배내옷은 배내 저고

22) 서울 六百年史 - 산부(産婦)의 음식.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2.html>

리·쌀포대기·쌀저고리 등의 명칭이 있다. 배내옷은 손수 바늘로 꿰매며 앞에 단추를 달지 않고 끈을 길게 하여 가슴을 한 바퀴 돌려서 뻗 수 있도록 한다. 모양은 바지는 없으며 저고리만 발을 덮을 만큼 길게 만든 것이다. 끈과 옷은 백색으로 하여야 하며 단추를 달지 않고 끈으로 길게 하는 이유는 수명장수(壽命長壽) 한다는 속신에 따른 것이다.

포의를 만드는 시기는 일정하지는 않다. 대개 출산 1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함이 일반적인 습속이나 해산 후에 만들기도 한다. 해산 후에 만드는 경우에는 미리 마련해 두면 부정을 탄다고 믿기 때문이다. 배넛저고리를 만드는 사람은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만들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만들 때는 복 많은 여인을 선별하여 의뢰한다²³⁾.

《東醫寶鑑》에서 소아의복에 관해 언급한 부분을 보면, 날씨가 추울 때는 부모가 늘 입었던 헌옷으

로 의복을 만들어 입히고 새 솜이나 새 비단을 쓰지 말아야 한다. 오래된 것을 쓰는 것은 너무 따뜻하게 하면 근골이 연약해져 쉽게 병이 생기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70~80세 노인이 입던 헌 잠방이나 헌 옷옷을 고쳐 적삼을 만들어 입히면 진기를 길러주어 오래 살 수 있게 한다. 부귀한 집에서는 절대 새로 만든 모시옷이나 비단옷을 소아에게 입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복도 달아난다²⁴⁾. 라고 하여 헌 옷의 사용을 강조하였다. 실제 궁중에서는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했다. 조선 전기에는 昭格署에서 치성 드린 옷을 사용하느라 東醫寶鑑의 방법을 따르지 못하였다.

조선시대의 昭格署는 하늘의 별들에게 올리는 醮祭를 관장하던 기구였다. 임란 이전 昭格署가 존속하던 기간에는 왕비나 후궁이 출산을 하게 되면 昭格署에서 3일간 초제하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때 치성 드린 의복을 신생아에게 사용하였다²⁵⁾. 연산군과 중종 대에

23) 서울 六百年史 - 산아(産兒)에 대한 준비물.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ok/txt/text/6-1-3-3.html>

24) 허준 지음 : 前掲書, p.1839.

25) 신명호 :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前掲書, p.22.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치폐를 거듭하다가 임란 이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²⁶⁾. 임란이후 昭格署를 폐지하면서 신생아에게 헌 옷을 사용하게 되었다²⁷⁾. 산실의 설치에서도 보였던 도교적인 색채가 조선 후기로 접어들며 약해지고 東醫寶鑑의 의학적 처방을 따르게 됨을 볼 수 있다.

4) 준비약물

産室廳충규에 보면 궁중에서 산달 초에 준비하는 예비 약물 및 제조법에 대해 나와 있다. 예컨대 佛手散의 경우에는 5첩을 준비하는데 당귀 6전, 천궁 4전, 익모초 2전을 모두 갈아 1첩으로 만들고 물 1승 2흡으로 달이다가 술을 조금 넣어 4흡까지 졸아들면 찌꺼기를 버리고 시간에 관계없이 따듯할 때 진상한다고 기록하였다²⁸⁾. 여기에 待令藥物이라하여 産室廳을 배설한 당월에 가까운 시점에

입품하고 납입하여 준비토록 한 약물이 있다. 待令藥物은 익모초 2전을 가한 佛手散, 桃仁, 泥酒, 홍화 각 1전을 더한 芎歸散, 紫蘇飲, 榆白皮湯, 牛膝湯, 失笑散, 滑石末, 大麥末, 白扁豆末, 花石末, 伏龍肝末, 葶麻仁, 葶麻莖, 淸蜜, 眞油, 鷄卵, 生薑, 生葱²⁹⁾으로 구성된다.

《최숙원방 호산청일기》³⁰⁾에 보면 待令藥物의 실제 사용례가 나오는데, 복통이 시작하자 佛手散에 익모초 2전을 가한 약을 썼으며³¹⁾, 해산 후 胞衣가 나오지 않아 芎歸湯에 紅花, 桃仁, 冬葵子, 榆白皮 각 1전과 滑石 2전을 더하여 태반을 내리는 일을 돕도록 사용하였다³²⁾.

2. 출산

조선 왕실의 궁중에서의 출산법은 《臨産豫智法》³³⁾이라는 구체적인

26) 李鐘銀 : 昭格署 관계 역사자료검토, 『비교문화연구』 7,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1988).
27) 《春秋日記》同治 13년 2월 10일조, 장서각 도서분류 2-3617.
28) 《産室廳總規·解媿》條 (杏雨書屋所藏本) 참조.

29) 김호 :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 지침서, 臨産豫智法 醫史學, 大韓醫史學會誌 제 13권 제2호 통권 제25호(2004.12), p.355.
30) 장서각 분류번호 2-3619.
31)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 문화, 돌베개, 2002, p.32.
32) 上揭書, p.33.
33) 장서각 청구기호 『S06-04-0861』 마이크로 필름 번호 MF35-004657 편저

출산지침서를 원칙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에 먼저 임신예지법의 번역원문을 소개한 후, 각 항목별로 東醫寶鑑 및 각종문헌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비교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臨産豫智法 안에 숨겨진 한의학적 원리를 찾고, 실제 출산행위에서 지침들이 어떻게 지켜졌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臨産豫智法

① 출산에 임박하여 여러 가지 소소한 증세를 낱낱이 의녀에게 하고하여 때에 미쳐 거행하도록 하며 ② 출산할 때 산실의 방안과 방밖에 시끄러운 소리와 급한 걸음걸이를 못하도록 금지하며 마땅히 문과 창문을 닫아 조용하게 때를 기다리도록 하셔야 한다. 산실의 방안에 병풍과 장(장막)을 치되 다만 풍한을 피하는 정도여야지 여러 겹을 두어서는 안 된다. 공기가 응울(막히고 답답한 상태)해져 더운 기운이 증꺾하도록 말 것이며 의대(옷가지)의 온량(따뜻하고 서늘함)을 반드시 적중하도록 하여

서 너무 덥거나 너무 서늘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③ 출산에 임박하여 나이가 많고 유식하고 순근한 부녀자 3-4인을 번갈아 좌우에 두고 모시도록 하고 나이 어리고 성질이 경박하고 급한 사람과 단지 행동이 경망한 사람은 일절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④ 출산에 임박하여 매우 더운날(盛暑)인 경우 당연히 깊고 조용한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거처하며 창문을 열어두며 맑은 물을 많이 담아놓도록 하여 열기(熱氣)를 막도록 할 것이며, ⑤ 복통이 비록 긴급하지만 경동하지 마오시며 힘주는 것을 일찍 하지 말 것이며 기다리다가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면 가의(더 주의하여)하여 힘을 주어야 하며 더 주의하여 평안히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공겁(두려워하다)하지 말 것이며 복통이 비록 긴급하더라도 사람을 붙드시고 천천히 걷도록 하고 만일 피곤할 때가 있으시면 사람에게 의지하여 서 계시고 상당히 쉰 후 즉시 붙들고 행보하실 것이며, 자주 허리를 구부리거나 안거나 눕거나 자서는 안 될 것이며 복통이 없을 때는 좌와(앉고 눕는 일)를

자 : 未詳, 간행년 : 未詳.

임의로 하면서 ⑥ 자주 곱탕(미역국)에 흰 쌀밥을 말아서 내오도록 하시며 만일 가슴이 답답하거든 흰 조청 한두 손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내오시게 하시며 복통이 매우 긴박할 때는 미역국에 흰 쌀밥을 말아 매우 따뜻하게 하여 억지로라도 자주 올리도록 해서 원기를 돕도록 하시며 해산 당월에는 굳은 음식과 찰진 병식(떡과 음식)과 마른 병식과 마른 포육과 마른 어물과 유니(기름진 음식)한 것과 지짐(기름에 지진 것)등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내오게 하지 마시며 해만하기 전에는 비록 번갈아실 지라도 물을 먹지 마시고 자주 청미음으로 다음을 대신하여 올리게 하십시오.

解婁 후 謹慎 諸方

⑦ 해만하오신 후 즉시 평안히 누우시고 모시고 있는 부녀로 하여금 천천히 각부(다리부위)를 밟게 하기를 무수히 하게 할 것이며. 하월(여름철)에는 방 안이 너무 덥게 하지 말고 또한 사람들이 많아 기운이 혼증케 하지 말고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지 마시고 때

로 갱반을 올려서 나날이 점점 더 올리고 생냉(날 것과 찬 것)한 것과 단단한 것을 일절 금지하시며 ⑧ 유즙이 처음 모였을 때 비록 매우 아프지만 참으시고 손으로 서서히 주물러서 유즙을 흘러내리도록 하여 멍울이 질 병이 없도록 하실 것.

解胎毒法

⑨ 아기씨 태어나신 후 소리내기를 기다리지 말고 모시고 있는 부녀는 급히 보드라운 線紬로 오른손 제2지에 감아 황련감초탕에 잠가 口中을 두루 씻으시고 또 손가락에 꿀주사『밀주: 꿀에 버무린 주사』를 묻혀 입 안에 두루 발라 삼키게 하오시고 즉시 젖을 올리지 마시고 꿀주사를 모두 삼키기를 기다린 후에 호도육을 콩알만하게 부드러운 곱에 싸서 입 안에 머금고 있도록 할 일.

斷臍法

⑩ 태줄을 배꼽부터 두치 남측이 남기시고 실로 단단히 매은 후에 조심해서 끊어내고 일절 잡아당기

지 말고 즉시 햇숨으로 덮어 삼가
풍한을 피하도록 할 일.

進乳法

⑪ 젖을 올리실 때 매번 짜버린
후에 올리시고 밤에 자고 나면 젖을
또한 매번 짜버린 후에 올리시고 비
록 자주 올리지만 매번 부족하게 올
리시고 한 번에 지나치게 올리지 마
시며. 유모가 잠잘 때는 젖을 빼도
록 하고 우는 소리가 그치지 않은
경우라면 문득 젖을 올리지 마실 일.

洗浴法

⑫ 분만하신 후에 제3일에 목욕
할 때에 탕수를 약원(내의원)에서
당일에 마땅히 들여올 것이오니 다
만 수건에 조금 묻혀 씻는데 오래하
지 말 것이며 다음부터 세욕 하실
때도 매번 저담즙(돼지 쓸개의
즙)을 조금씩 넣으실 일.

保護法

⑬ 무릇 소아의 기부(肌膚:살갓)
가 실하지 못하니 의복과 덮어 두
는 것을 두껍게 하지 마셔서 땀이

나지 않게 하고 백일 후에 천기(기
후)가 화란(온화하고 따뜻함)하고
바람 없는 날에 자주 햇볕을 쬐도
록 하며

□□□하시고 눕지 않으시면 근
골이 □□□□□하니, 마땅히 자
주 눕게 하실 일. 이하 훼손됨³⁴⁾.

1) 산모의 상태를 보고하는 상례와 삼칠일속

임산예지법에서는 여러 증세를 의
녀에게 하고토록 하였다고 한다.<원
문①> 산모의 상태를 보고하는 상례
는 産室廳총규에 자세히 나와있다.

산기가 있을 때 호산관은 증후에
따라 晝啓하고 해만 후부터는 해
당 전공의 기후, 米飯, 進藥의 상
황과 아기씨의 젖 먹는 일, 대소변
의 이유 등을 당일에는 수시로 서
계하고, 다음날부터는 아침부터 저
녁까지 한 번 서계한다. 그리고 제
4일부터 7일까지는 아침에만 두
번 서계한다. 7일 이후부터는 호산
관이 비록 직속하더라도 서계하지
않는다³⁵⁾.

34) 김호 : 前掲書, pp.357~360.

35) 上掲書, pp.355.

보고함에 있어 당일과 3일째, 7일째로 차등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점차적으로 보고의 강도를 줄인 것을 보면 3일, 7일을 기준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안정적으로 변해간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일과 7일 기준으로 하는 일은 이밖에도 많이 있다.

민간에서는 출산 후 7일째가 되면 초이레(初七日), 14일째를 두이레(二·七日), 21일이 되면 세이레(三·七日)라 하여 기간을 매듭지어 마치 통과의례와 유사한 행사습속이 있다. 산후 3일째에 태의 처리를 불에 태우거나 매장을 한다³⁶⁾. 또 3일째에 아이의 강보를 벗기고 처음 배냇저고리를 입힌다³⁷⁾. 출산 후 산모와 산아(産兒)의 순산(順産)과 건강함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건강·제화초복(除禍招福)을 기원하는 행사도 출산일·삼일·칠일·삼칠일에 있다. 모시는 대상은 주로 삼신(三神)이고 불교를 신봉

하는 집이나 무속(巫俗)에 따르는 집은 승려나 무당의 지시에 따른다³⁸⁾. 궁중에서의 치성은 이능화(李能和)의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를 보면 알 수 있다.

「궁중에서는 아기가 탄생되면 권초의 예를 행한다. 탄생한 날에 새끼를 꼬아 문비(門扉) 위에 걸고 사흘째가 되면 대신으로서 아들이 많고 재난이 없는 이에게 명하여 소격전(昭格殿)에서 3일째를 지내게 한다. 이 초제에서 현관이 새끼(因繩)를 걸어다가 납(納)한다.」³⁹⁾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따르면 3일째에 산모와 태아가 목욕을 하고 7일째에 권초를 지낸다⁴⁰⁾.

칠일간(七日間)을 하나의 단위로 정하여 행사하는 습속은 고래(古來)로부터 있어 온 것이다. 이는 삼(三)·칠(七)·백(百) 등의 숫자를 길수(吉數)로 믿어 이를 선호한

36) 서울 六百年史 - 태(胎)의 처리.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6.html>
37) 서울 六百年史 - 강보(襁褓)와 포의(胞衣).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5-2.html>

38) 서울 六百年史 - 치성(致誠).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4-23.html>
39) 이능화(李能和) :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 대양서적(大洋書籍), 1973, p.207.
40)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문화, 前揭書, pp.34~35.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보여진다. 《삼국유사(三國遺事)》의 단군신화(檀君神靴)에도 삼(三) · 칠(七) · 백(百)에 대한 기록이 있다⁴¹⁾.

이러한 습속은 출산한 아기가 그 날까지 무사하게 성장한 것을 축하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출산 시부터 삼

신치성 및 산모와 가족들에게 가해진 많은 금기사항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1일(三 · 七日) 이후는 지금까지의 예외적 상태로부터 정상생활에로의 단계적 회복을 의도한 것이고 아기에게는 특별한 보호로부터 환경에의 적응을 도모하여 행하여진 습속으로 볼 수 있다⁴²⁾.

2) 출산을 돕는 사람의 선정

임산예지법에서는 출산을 돕는 여성들을 나이가 많고 유식하고 순한 부녀자로 고르도록 했다. 나이가 어리고 경박하고 급한 사람은 아예 출입을 못하게 했다.<원문②>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보면 최숙원의 복통 기운이 있어 호산의관 최성임과 정두준, 의녀 취화와 인향 등은 대기하도록 했는데, 이들에게도 술 대접을 7일간 금지토록 하였다는 대목⁴³⁾이 나온다. 위의 지침에 따라 사람을 선별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도 술을 7일간

41) 고조선의 건국신화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A%B3%A0%EC%A1%B0%EC%84%A0%EC%9D%98_%EA%B1%B4%EA%B5%AD_%EC%8B%A0%ED%99%94
「옛날, 환인의 서자(庶子) 환웅이 인간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환인이 인간세계를 굽어보니 삼위태백(三危太伯)이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에 적합한 곳으로 여겨지므로,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3개를 주며 환웅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 인간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자 환웅이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비롯한 3,000명의 수하를 이끌고 태백산(백두산 혹은 묘향산) 정상 신단수(神檀樹)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며 다스리니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불렀다. 그는 곡(穀, 곡식), 명(命, 목숨), 병(病, 질병), 형(刑, 징벌), 선(善), 악(惡) 등 360가지 일을 맡아 인간세계를 다스렸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동굴에 사는 곰과 호랑이 한마리가 환웅을 찾아와 인간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들의 간청을 들은 환웅이 이들에게 신령(神靈) 한 쌍 1자루와 마늘 20쪽을 주며 이것만 먹고 100일간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곰은 이내하고 근신하여 삼칠일(3*7, 21일)만에 인간 여자로 변하였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

42) 서울 六百年史 - 삼·칠일속(三·七日俗).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ok/txt/text/6-1-5-81.html>

43)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 문화, 前揭書, p.32.

금지토록 하여 더욱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간에서는 부정(不淨)하지 아닌 사람, 출산 경험이 있는 사람, 나이가 많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산파는 주로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담당하게 되며 복 많은 할머니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양반집에서는 종할머니로 하여금 산파를 담당하게 한 경우도 있다.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는 출산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자를 얻는다는 기쁨도 있는 것이어서 더욱 정성껏 산모와 아기를 보호하게 된다. 산파를 복 많은 할머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이 아이에게 전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에서이다. 그러므로 무자(無子)하거나 청상과부, 박복한 사람에게는 부탁하지 않았다.

마을에서 복 많은 할머니는 여러 집에 다니면서 조산을 해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산파에게는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였는데 주로 의복으로 하였으며 때로는 속옷이나 버선을 해주기도 한다. 보수를 의복으로 해주는 뜻은 장수하라고 기원하는

뜻에서 이다.

조산할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은 산실(産室)에 들어가 분만 시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하며 산부(産婦)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대화하였다⁴⁴⁾.

《규합총서(閨閣叢書)》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시산(始産)하게 되면 노성(老成)하고 믿음직하며 숙친(熟親)한 사람 수삼인(數三人)으로 산실을 안정 고요하게 하여야 한다. 뒤송송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산모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⁴⁵⁾

이렇듯 출산을 돕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산실을 고요하게 만들어 산모의 정신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순산을 돕기 위한 우리 조상들의 지혜이다.

44) 서울 六百年史 - 조산[助産- 산파(産婆)].

<http://seoul600.visitseoul.net/seoul-history/minsok/txt/text/6-1-3-5.html>

45) 정양완(鄭良婉) 역 : 규합총서(閨閣叢書), 보진재, 1975, p.336 .

3) 장소

임산예지법에 의하면 출산 당일 너무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너무 덥거나 춥게 해서는 안 될 일 등을 정해 놓았다.<원문②> 또 너무 더운 날이라면 깊고 조용한, 집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거처하며 창문을 열어두고 맑은 물을 많이 담아놓도록 하여 열기를 막도록 주의하였다.<원문④>

《東醫寶鑑》에 따르면 ‘熱産’이라 하여 더위가 심하면 깊고 조용하며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방에서 창문을 열고 찬물과 맑은 얼음을 많이 놓아 두어 발열을 예방토록 하였다⁴⁶⁾.

우리 조상들이 출산 장소에서 바라고자 했던 것은 조용함과 적절한 온도이며 이는 산모의 마음의 안정과 발열을 막기 위함이다.

4) 복통시 주의사항

임산예지법에서 보면 복통이 임박해도 놀라거나 겁먹지 말고 가능하면 너무 일찍 힘을 주지 말도

록 했다. 그리고 사람이 붙들고 천천히 걷도록 하고 만일 피곤하실 때는 사람에게 의지하여 서 있다가 또 걷기를 반복하도록 요구하였다. 너무 허리를 구부리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눕거나 잠을 자지 말도록 했다.<원문⑤>

위의 내용은 《東醫寶鑑》에서의 保産(난산을 막는 법)⁴⁷⁾과 같다. 《東醫寶鑑》에 따르면 두려워하면 기가 약해지고, 기가 약해지면 상초가 막히고 하초는 불러올라 기가 돌지 않기 때문에 난산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임신한 여자가 평소에 몸을 움직이거나 몸을 쭉 펴주지 않다가 진통을 참느라 몸을 구부리고 옆으로 누워 있으면 태아가 뱃속에서 제대로 돌지 못한다. 그래서 橫産이나 逆産이 되고, 심하면 뱃속에서 죽게 되니 조심해야 한다.⁴⁸⁾

고 기록한다. 위의 주의사항은 기력을 보존하여 難産을 막고 출산직전까지 걸거나 서서 태아가 뱃속에서 제대로 자리 잡아 順産

46) 허준 지음 : 前掲書, p.1775.

47) 上掲書, p.1770.

48) 上掲書, p.1771.

을 유도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5) 음식

임산예지법에서 보면 복통이 없을 때는 앉거나 누워 있어도 좋는데 이 때 체력을 보충하기 위해 미역국과 흰 밥을 먹도록 하였다. 속이 답답하여 밥을 먹을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꿀물을 권하기도 하였다. 해산 당월에는 딱딱한 음식이나 떡, 그리고 소화가 안되는 마른 것들과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도록 권유하였다. 목이 마를 때도 물을 마시지 말고 맑은 미음을 먹도록 하였다.<원문⑥>

딱딱한 음식이나 떡, 그리고 소화가 안되는 마른 것들과 기름진 음식을 자제하도록 한 것은 소화가 편하도록 음식을 고른 것이다. 이는 해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커진 자궁에 눌러 위와 장이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심한 것으로 보인다. 미역국과 흰밥, 꿀물, 청미음은 소화를 보면서 기력도 보충하기 위한 음식으로 보인다.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의하

면 분만 당일 밥과 미역국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 분만 후 두 번 드시고, 태의가 나온 후 두 번 드시고 이후에도 계속 밥과 미역국을 무탈히 드시어 총 열한차례 밥과 미역국을 먹었다고 한다⁴⁹⁾.

위의 내용을 보면 하루에 열한번 먹은 것은 많은 양을 먹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 또한 소화기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며 기력을 보충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 출산 직후의 몸조리와 음식

출산한 후에는 곧바로 편히 누운 다음에 부녀자들로 하여금 허리와 다리 부위를 마사지하도록 했다. 여름에는 너무 덥게 하거나 방안에 사람들이 많아 덥게 하지 말도록 하였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지 말고 때때로 국에 밥을 말아 먹으면서 점점 그 양을 늘려가며 날 것과 찬 것, 단단한 것들을 금하였다.<원문⑦>

출산직후 허리와 다리를 마사지

49)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생활·궁중문화, 前掲書, p.34.

하도록 한 것은 산후부종과 산후 요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소화기능을 생각하여 조심조심 음식을 먹게끔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보면 산후 3일에 이르기까지 밥과 미역국만 먹으며, 3일후 건강이 회복되자 홍합탕등 평상식으로 전환하였고 이때에도 미역국은 계속 먹었다고 한다⁵⁰⁾.

위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 의하면 홍합은 산후에 혈기로 적취가 생긴 데에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⁵¹⁾. 산후 3일이 지나 평상식으로 전환하였어도 산후 몸에 맞추어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음식을 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태독을 제거하는 법

임산예지법에 의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울지 않더라도 명주로 오른손 둘째손가락에 감아 황련감초탕에 적셔 입안을 씻게 하였다. 또

50)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 문화, 前揭書, pp.35~36.

51) 허준 지음 : 前揭書, p,1830.

손가락에 꿀을 버무린 주사를 묻혀 입 안에 두루 발라 삼키게 하였다. 꿀주사를 모두 삼킨 후 호도육을 부드러운 김에 싸서 입 안에 머금기 전까지는 젖을 먹이지 않도록 하였다.<원문⑨>

《東醫寶鑑》에 따르면 황련과 감초를 달인 물로 입속의 더러운 것을 닦아내어야 하며 그 것을 삼켜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다. 꿀에 주사를 개어 삼키게 하면 평생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주사와 꿀을 삼킨 뒤에 젖을 먹일 때에도 토할 수 있기에 적당히 먹여야 한다고 하였다⁵²⁾.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보면, 아이가 태어나자 한 의원이 황련감초탕을 올려야 한다고 하자 너무 추우니 다만 주사를 섞은 꿀물을 준비하자고 하였다. 이에 주밀을 작은 종지기에 담아 태독을 제거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두어야 후일 태독이 피부 밖으로 밀려나와 생기는 각종 종기 혹은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52) 上揭書, p,1837.

었다⁵³⁾. 이렇듯 기본적으로 임신 예지법의 원칙에 충실하나 상황에 따라 변화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황련이 찬 특성⁵⁴⁾이 있기에 기후의 차가움을 들어 주밀로만 대체한 것으로 추측 된다.

8) 배꼽 처리방법

임산예지법에 따르면 탯줄을 배꼽부터 두치 정도 되는 곳에서 끊어내고 잡아당기지 말며 햇숨으로 덮어 풍한을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원문^⑩>

《東醫寶鑑》에서는 이에 대하여, 태아는 뱃속에서 탯줄을 통하여 어머니의 기와 통하는데 비록 자궁에서 나오더라도 배꼽으로 통하는 기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탯줄을 끊은 뒤 풍사가 들어가 병이 되는 일이 있다⁵⁵⁾고 설명한다. 생강즙이나 참기름에 밀가루를 섞어 배꼽 주위를 덮고, 배꼽 머리에 뜸을 3장 뜨는 熏臍⁵⁶⁾라는 법도 소개하는데 이 또한 풍

을 막기 위함이다.

9) 젖을 먹이는 법

임산예지법에 전하는 젖먹이는 법은, 현전하는 자료 중 왕실의 수유습관과 관련한 유일한 자료라 한다.

처음 산모의 유즙이 모였을 때 매우 아프더라도 참고 손으로 서서히 주물러서 유즙을 버리도록 하였다.<원문^⑧>

《東醫寶鑑》에 따르면 산후에 젖을 짜내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에 나쁜즙이 뭉쳐 열이 몹시 나고, 단단하게 뭉쳐 당기면서 아프며, 갈증이 심하여 마실 것을 찾고, 젖가슴이 붓고 팽팽해져 아파 손을 댈 수 없는 妬乳가 된다⁵⁷⁾고 한다. 妬乳는 젖이 정체되어 혈기와 부딪쳐 생기는 것으로 처음 산모의 젖을 짜내는 것은 결국 이를 막기 위함이다.

젖을 먹일 때 매번 짜서 버린 후에 먹이고 밤에 자고 나면 젖을 또한 매번 짜서 버린 후에 먹이고 한

53)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 문화, 前揭書, pp.33~34.

54) 허준 지음 : 前揭書, p.2157 .

55) 上揭書, p.1837.

56) 上揭書, p.1838.

57) 上揭書, p.681.

번에 많이 먹이지 말고 매번 부족하게 자주 먹이고 유모가 잠잘 때는 젖을 빼도록 하고 우는 아이에게는 젖을 먹이지 말도록 했다.<원문⑪>

《東醫寶鑑》에 따르면, 16세 이전에는 혈기가 모두 왕성하여 해가 떠오르는 것 같고 달이 차는 것 같으나 음은 잘 자라지 못하여 장위가 아직 약하고 좁기 때문에 젖 먹이는 데 있어 장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잠잘 때 젖을 주지 않는 이유는 졸리고 노곤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가슴이 막혀 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젖을 먹인 후 음식을 주면 안되고 음식을 먹인 후 젖을 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젖과 음식이 합쳐지면 소화가 잘되지 않아 뱃속에서 뭉쳐 벽이나 적이나 감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⁵⁸⁾.

위와 같은 젖먹이는 습관의 목적은 소화기가 약한 소아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고 원활히 소화·흡수를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0) 목욕시키는 법

임산예지법에 의하면 출산 후 3일째에 목욕하는데 탕수를 약원(내의원)에서 들여오고 수건에 조금씩 문혀 씻는데 오래하지 말도록 하고 매번 저담즙(돼지 쓸개의즙)을 조금씩 넣어 씻기도록 하였다.<원문⑫>

《東醫寶鑑》에 따르면 虎頭骨·복숭아나무 가지·저담을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 넣고 달인 물로 씻으면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평소 저담즙을 끓인 물로 씻으면 창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풍랭에 상할 염려가 있으니 목욕을 오래하지 않도록 하였다⁵⁹⁾. 임산예지법이 《東醫寶鑑》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숙원방 호산청일기》에 보면 분만 후 3일째에 일관이 길한 시간들을 정하여 목욕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다만 추운 달 목욕을 할 경우 혹 감상의 염려가 있다하여

58) 上揭書, pp.1838~1839.

59) 上揭書, p.1837.

수건으로 대략 문지르도록 했다고 한다. 이때 준비한 물품을 보면, 艾湯 2동이, 陳艾 2편, 수건으로 白苧布와 白正布 각각 3척, 白馬尾 鬚 1부, 아기씨 세욕에 필요한 桃와, 梅花나무의 씨앗 각각 3근과 虎頭를 끓인 물과 猪膽 1부를 鑪器 대야에 담도록 하였고, 수건으로 白紬 3척, 세대에 소용되는 陶豆毛 盖具⁶⁰⁾ 1좌, 瓢子 1개, 酒 1병, 藍紬 1척, 油紙 1장을 준비토록 하였다. 수행에 있어서는 의녀1인을 동행케 하였다⁶¹⁾.

역시 《東醫寶鑑》의 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그 목욕하는 세대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白馬尾鬚은 백마꼬리털로 만든 채로 약썩달인 물을 쳐올려 산모의 온몸을 부드럽게 두드려 주는데 사용하였다. 일설에 의하면 虎頭를 胡桃의 음차로 보는 견해⁶²⁾도 있는데, 東醫寶鑑 원문에 虎頭骨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虎頭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양반사대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욕법을 사용했다. 《默齋日記》에 의하면 출산 후 3일째에 복숭아, 오얏, 매화의 뿌리를 넣고 끓인 목욕물로 신생아를 목욕시켰다⁶³⁾ 한다.

위와 같은 목욕법은 모두 허약해진 산모와 소아가 몸을 상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11) 영아보호법

임산예지법에 의하면 영아의 피부가 튼튼하지 못하므로 옷을 두껍게 하여 땀을 흘리게 하지 말고 백일 후에 날씨 따뜻하고 바람 없는 날에 햇볕을 쬐도록 했다.<원문⑬>

《東醫寶鑑》을 보면 위 보호법의 이유가 나온다. 옷을 두껍게 입어 너무 따뜻하면 피부와 혈맥을 상하여 창양이 생길 수 있고 땀이 나서 땀구멍이 닫히지 않으면 풍이 쉽게 들어오게 된다. 백일 후에 자주 햇볕을 쬐도록 한 것은 기혈을 강하게 하여 풍한을 견디고 질병이 안생기도록 하려는 목적에서였다⁶⁴⁾.

60) 넓은 독, 뚜껑 있는 것.

61)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 문화, 前揭書, p.35.

62) 정승혜 : 前揭書, p.78.

63) 《默齋日記》, 嘉靖三十年 一月初八日 丙申條.

64) 허준 지음 : 前揭書, p.1839.

뒤의 내용이 훼손된 부분을 《東醫寶鑑》의 내용에서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 아이를 안아주기만 하고 땅의 기운을 받도록 하지 않으면 뼈와 근육이 약해져서 쉽게 병이 난다. 밤에 잠을 잘 때에는 어머니 팔을 베게 하지 말고 반드시 콩 주머니를 만들어 베게 하며, 늘 어머니 오른쪽 혹은 왼쪽 옆에 가까이 눕혀 두고 머리와 얼굴을 내 놓고 이불을 덮어주어야 한다. 계속 반듯하게 눕혀놓으면 경기가 생길 수 있으니 때때로 돌려 눕혀야 한다⁶⁵⁾.

Ⅲ. 考 察

전통적인 출산법은 당대의 지식, 철학, 의학, 종교의 총화이다. 그것들은 모두 건강한 산모와 아이를 낳기 위한 의지로 집결된다.

궁중이나 민간에서의 산실의 준비를 보면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던 도교적 영향이 많이 보인다. 부적을 붙이고 주문을 외우며 안녕을 기원한다. 최생부나 산실방위도 민

간의 풍속을 보면 당대의 방위학 또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욕하는 시간이나 날을 정함에 있어 일관이 길일과 길시를 따지는 것은 당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운기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현대사회의 출산법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 출산법의 특징 중 하나는 산모의 마음을 중요시한 점이다. 출산을 돕는 사람들을 선정했던 것도 산실을 고요하게 만들어 산모의 정신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궁중에서는 시중드는 사람에게도 7일간 술을 먹지 않도록 했으며 나아가 많고 유식하고 순한 사람을 뽑도록 한 것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출산 전 대화를 통해 산모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도 부여되었다. 장소의 선택도 조용함과 쾌적한 온도조절을 통해 산모의 안정을 꾀하였다. 이를 위해 깊고 조용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창문을 열고 찬물과 맑은 얼음을 놓아두도록 한 것이다. 출산 시에 산모로 하여금 공집치 말도록 주의하였다. 침착함을 유지 하여 제때 출산하기 위함인데 東醫寶鑑에서

65) 上揭書, p.1839.

는 이를 거의 순환으로 풀어서 설명한다. 두려워하면 상초가 막히고 하초가 불러올라 난산하게 되니 놀라거나 겁먹지 말도록 하였다. 수치와 검사에 집중하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의학 안에 몸과 마음이 서로 상응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밖의 출산지침들도 대부분 당대 의학의 최고봉인 東醫寶鑑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복통이 올 때에 천천히 걷다가 서기를 반복하고, 허리를 구부리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잠을 자지 말도록 한 것은 횡산이나 역산을 막고, 태아의 위치를 바르게 잡아 순산하기 위함이다.

음식은 산미와 산곽이라 하여 쌀과 미역 중 미리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출산과 산후에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먹도록 하였다. 미역국과 쌀밥 외의 단단하거나 소화 흡수되기 힘든 음식은 일절 금하였다. 이는 소화기능에 최대한 무리를 주지 않으며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 실제 출산에 적용된 사례를 살펴보면 분만 후 하루 동안 밥과 미역국을

총 열한번에 걸쳐 먹었다고 나온다. 이는 많지 않은 양을 여러 번에 걸쳐 먹었음을 짐작케 한다.

출산직후 허리와 다리를 마사지하도록 한 것은 산후부종과 산후요통을 예방코자 함이다.

황련과 감초, 주밀로 태아의 입을 씻은 것은 태독을 제거하여 향후 생길 종기나 두창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아토피 등 소아의 만성 피부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에 유의할 대목이다. 실제 적용에 있어서 최숙원의 경우를 보면 날이 너무 춥다하여 황련을 배제하고 주밀로 대체하였다. 이는 원칙에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처음 산모의 유즙이 모였을 때 아프더라도 참고 손으로 서서히 주물러서 유즙을 버리도록 한 것은 妬乳를 막기 위함이다. 妬乳는 젖이 정체되어 혈기와 부딪쳐 생기는 것으로 붓고 팽팽해져 아파 손댈 수 없게 되는 것을 이른다. 잠잘 때 젖을 주지 않는 이유는

줄리고 노곤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가슴이 막혀 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젖을 먹인 후 음식을 주면 안되고 음식을 먹인 후 젖을 주면 안되는데 이는 젖과 음식이 합쳐지면 소화가 잘되지 않아 뱃속에서 멍쳐 벽이나 적이나 감이 되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젖을 먹임에 있어 추구했던 것은 소화기가 약한 소아에게 질병이 생기지 않고 원활히 소화흡수를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목욕법에 있어서도 약한 상태인 산모와 태아의 몸을 상하지 않으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虎頭骨·복숭아나무 가지·저담을 금이나 은으로 된 그릇에 넣고 달인 물로 씻은 것은 경기와 창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풍랭에 상할 염려가 있다하여 긴 시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산모의 약해진 몸을 고려하여 백마의 꼬리로 채를 만들어 약썩 달인 물을 몸에 부드럽게 닿도록 하였다.

영아의 의복을 너무 두껍게 하지

않고 부모가 입던 험 옷이나 헌잠방을 입도록 한 것도 영아가 병을 앓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옷을 두껍게 입어 너무 따뜻하면 피부와 혈맥을 상하여 창양이 생길 수 있고 땀이 나서 땀구멍이 닫히지 않으면 풍이 쉽게 들어오게 된다. 백일 후에 자주 햇볕을 쬐 것도 기혈이 강해져 풍한을 견디고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러한 의복의 사용은 임란이후에 도교적 영향력이 사용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궁중과 민간에 걸쳐 어떠한 방식으로 출산이 행해지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모두 당대의 최고수준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들이며 현대의 출산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산모의 마음을 중시하는 점과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보이는 지극한 정성은 수치와 검사에만 의존한 기계적인 현대의 출산법에 제일 부족한 점이다. 최근에서야 심리적 상담과 명상을 통한 마음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전통적인 출산법을 현재에 적절히 응

용·적용한다면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을 것이다.

IV. 結 論

1. 출산속은 출산의 준비, 출산, 산후 조리로 나뉘며 다시 출산의 준비는 산실의 준비, 산부 음식, 산아에게 필요한 물건의 준비가 주된 내용이다.
2. 산실의 준비는 궁중의 경우 왕비는 3개월 전, 후궁의 경우는 1개월 전에 설치하였다. 예법과 구성 인원의 차이는 있으나 실제 준비한 물품은 동일하였다. 민간에서는 시집이나 주로 친정의 안방에 설치하였다.
3. 산부음식은 쌀과 미역인데 이를 산미(産米), 산곽(山藿)이라 하여 특별히 엄선하여 정성들여 보관하였다
4. 산아의복은 대개 출산 1개월 전에 준비하였다. 초기 궁중에서는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위해 소격서에

서 치성드린 의복을 입었다. 소격서가 폐지된 후에는 치성이 중단되었다. 그리고 東醫寶鑑의 처방에 따라 헌옷을 입었다.

5. 臨産豫智法은 구체적으로 출산을 지시하는 왕실의 출산지침서이다. 임산예지법은 출산장소, 복통 시 주의사항, 음식, 解娩 후 謹慎 諸方, 解胎毒法, 斷臍法, 洗浴法, 保護法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원리는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으며, 각종 궁중의 기록을 통해 이 지침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히 응용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參 考 文 獻

1. 김호 : 조선후기 왕실의 출산 지침서, 임산예지법 醫史學, 大韓醫史學會誌 제13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04. 12).
2. 신동원·김남일·여인석 편역 : 한권으로 읽는 東醫寶鑑, 들녘, 1999.
3. 신명호 : 조선시대 궁중의 출산풍속과 궁중의학, 고문서연구, Vol. 21.
4. 신명호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궁중문화, 돌베개, 2002.
5. 呂重哲 : 祈子俗에 대한 人類學的 考察, 『여성문제연구』 8, 효성여대 한

- 국어성문제연구소, 1979.
6. 이능화(李能和) :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 대양서적(大洋書籍), 1973.
 - 7.李文樾 著 : 默齋日記, 장서각 청구기호 B6B^115, 嘉靖三十年 一月初八日丙申條.
 - 8.李鐘銀 : 昭格署 관계 역사자료검토, 『비교문화연구』 7,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수고, 1988.
 9. 정승혜 : 조선 왕실의 출산 문화 : 장서각 소장 《림산예지법》을 중심으로, 문헌과해석 통권37호(2006년 겨울).
 10. 정양완(鄭良婉) 역 : 규합총서(閩閩叢書), 보진재, 1975 p.336 .
 11. 허준 지음, 윤석하·김형준 외 옮김, 대한형상의학회·정행규백근기 외 감수 : 東醫寶鑑, 東醫寶鑑출판사, 2005.
 12. 《大君公主御誕生의 制》, 장서각 도서분류 2-2625
 13. 《선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60권, 36년 3월, 정축조.
 14. 《순조실록》, 태백산사고본 12권, 9년 5월, 무진조.
 15. 《선조수정실록》, 태백산사고본 14권, 13년 11월, 정묘조.
 16. 《중종실록》, 태백산사고본 21권, 9년 10월, 병오조, 21권, 10년 3월, 을축조
 17. 《六典條例》,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奎5289 ; “護産廳<嬪宮及宮人有娠 則設>”(권6, 禮典 內醫院條), “護産廳(중략) <惟無直宿>”(권6, 禮典 産室廳條), “護産廳(중략) 凡舉行 同産室廳”(권6, 禮典 産室廳條)
 18. 《內醫院式例》, 장서각 도서분류 17200 “解媿前 則醫官問安”(設廳産室廳條).
 19. 《春秋日記》, 장서각 도서분류 2-3617, 同治 13년 2월 10일조
 20. 《産室廳總規》, 杏雨書屋 所藏本 『解媿』條.
 21. 《臨産豫智法》, 장서각 청구기호 『S06-04-0861』, 마이크로 필름 번호 MF35-004657, 편저자 : 未詳, 간행년 : 未詳
 22. 고조선의 건국신화 -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wiki/%EB%8B%A8%EA%B5%B0%EC%8B%A0%ED%99%94>).
 23. 서울 六百年史(<http://seoul600.visitseoul.net>).